

최신 건축 경향



탄소제로시티마스다르프로젝트, (2006~)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

다른 지역과의 이종교배

20세기는 모더니즘의 시대였다. 모더니즘은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기계 문명으로 변화된 삶의 패러다임에 반응해서 출현한 문화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문화라는 필터를 끼고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을 한다면 16세기부터 시작된 동서양 문화의 교류가 만들어낸 문화적 하이브리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가 저술한 「모더니즘: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를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루비통매장, (1999) 나고야, 일본.



인류의 문화는 변화에 반응하면서 발전을 해왔다. 문화의 한 부분인 건축도 같은 발생 패턴을 가지는데, 20세기에는 산업화에 반응하여 콘크리트, 철, 유리를 이용한 새로운 건축이 출현하였고, 어떤 시기에는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멀리 떨어져서 발전해 온 문화들이 서로 융화되어 새로운 건축 문화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이는 생명의 세계에서 좀 더 나은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동일하다. 생명들은 두 개의 다른 성(性)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서로 다른 DNA를 섞어서 새로운 우성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려 하는데, 건축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의 다른 건축이 융화되어 새로운 건축 형태가 생성되기도 한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들어 지역적으로는 이미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고, 문화적으로 여태껏 이종교배되지 않은 지역이 남아있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종 문화의 교배라는 문화 혁신의 원동력이 소실되었고, 건축은 20

세기 중반부터 발전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된다. 루이스 칸 같은 건축가는 유럽의 전통 건축적인 가치로 회귀하려는 경향을 가졌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역시 과거 유럽 전통 건축에서 모티브를 따오려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른 분야와의 이종교배

이러던 중 1980년대부터 건축이 다른 분야의 문화와 이종교배를 시작하면서 건축은 혁신의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시도가 아마도 해체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체주의 건축가들은 철학이라는 장르를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건축 설계의 프로세스에 도입하였다. 이 같은 시도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기는 하였으나, 한때의 유행으로 그쳤고, 시간의 검증 앞에 실패라는 결과만 남았다. 해체주의의 실패 이후 건축은 다시 렘 쿨하스를 중심으로 '네오-모더니즘'의 시대로 돌아가면서 모더니즘의 그림자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타장르

와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서 건축가들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생물학, 컴퓨터 공학, 재료공학, IT, 패션, 미술 등 각 분야에서와의 협업 혹은 도움을 받으면서 새로운 건축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새로운 건축 이등장하기 직전의 혼란의 시대, 즉 어느 한 스타일이 한 시대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이 공존하는 일종의 '건축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유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이유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건축주의 층이 다양해지고 깊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왕정시대의 건축주가 일부 왕족과 귀족이었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에는 건축주가 한 개인이기도 하고 회사이기도 하며 법인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부자가 많아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건축주의 취향만큼이나 건축도 다양해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큐비즘, TV, 백남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상대성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만들어졌고, 미술에서는 큐비즘이 만들어졌다. 큐비즘은 전통적인 2D 평면에 4차원의 시공간을 담아내려는 노력이 있었던 화풍이다. 대표작가인 피카소나 뒤샹은 그들의 평면적 그림에 다른 시간대의 그림들을 겹쳐서 그림으로써 4D를 2D에 담아내려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TV라는 매체에서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 TV는 브라운관이라는 평면에 활동사진을 넣어서 시공간을 전달한다. 사람들은 TV 화면을 보면서 2차원적인 그림을 본다고 보기는 공간과 이벤트를 읽는다.

이러한 사회적인 패러다임을 잘 담아

낸 작가는 백남준이다. 그는 전통적인 평면에서 탈피하여 영상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아트를 창조해내었다. 백남준의 작품은 2차원 평면 브라운관이지만 4차원의 시간을 담아 동영상 상영해줌으로써 전통적인 조각이라는 미술 분야에 시간의 개념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접목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과 존 아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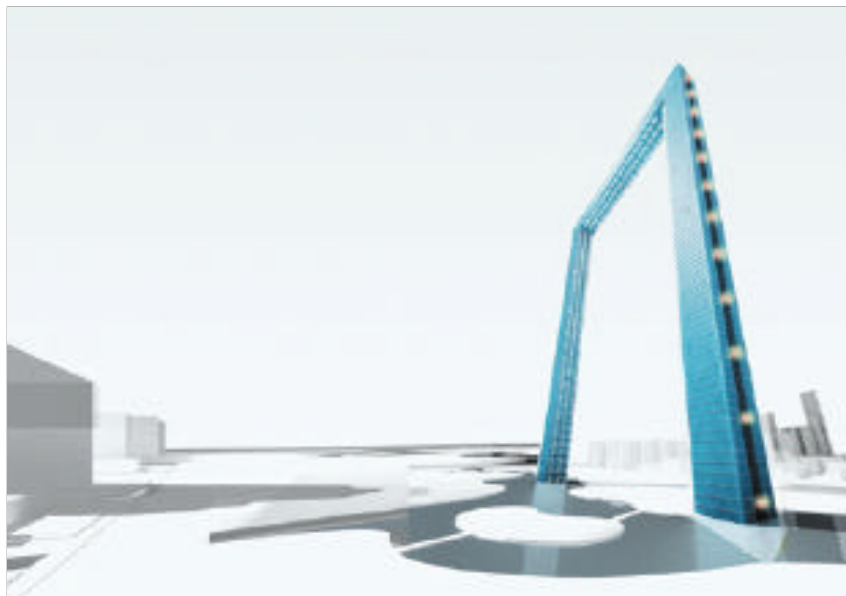
20세기 후반에 발명된 인터넷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인류 역사에 이전에는 없었던 공간을 창조해내었다.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정도는 인터넷을 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생활한다. 컴퓨터 모니터는 더 이상 평면이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이요, 이벤트이다. TV와 다른 점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 아니라, 마우스 클릭을 통해서 웹서퍼 개인이 만들어 가는 가상의 시공간이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사는 공간이다.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는 건축가가 토요이토였으며, 그는 「원드타워」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러한 비물질적인 세상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계보를 이어서 현대 문명사회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건축가는 '준 아오키(Jun Aoki)'이다. 앞서 말했듯이 큐비즘부터 인터넷까지 이어지는 문화의 축은 한마디로 2D 평면에 4D의 시공간을 담는 것이었다. 준 아오키는 기존의 평면적인 건축 입면에 새로운 공간과 이벤트를 담아낸 건축가이다.

친환경 건축

상대성 패러다임 속에서 만들어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은 1905년도에 처음 발표되었다. 예술의 각 분야에서 동시에 시공간의 재해석에 대한 작품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이론의 영향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다. 쉽게 말해서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세계사가 방향을 바꾸게 되면서 상대성이론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풍력발전 청라시티타워 계획안, (2008) 유현준 디자인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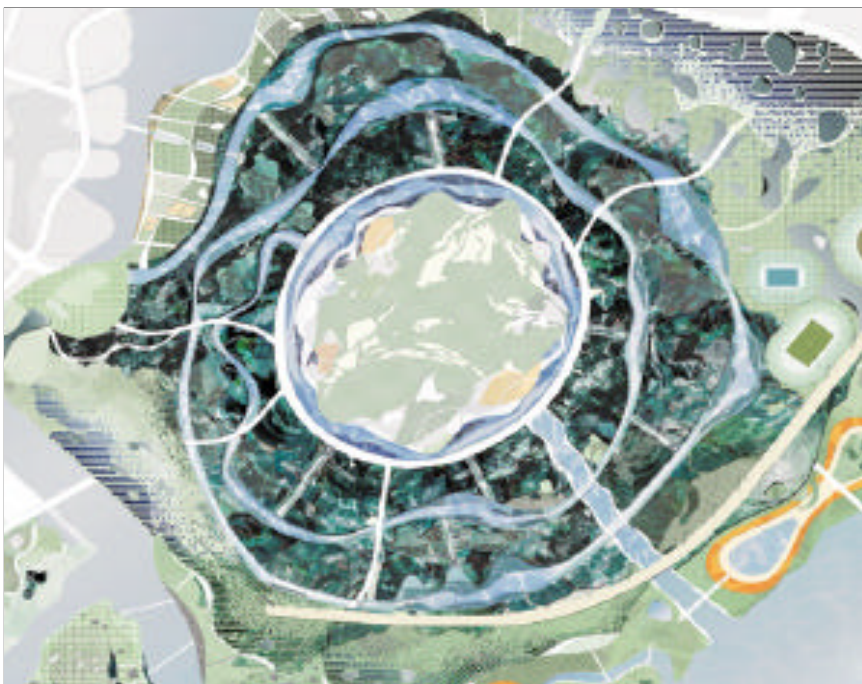
지구 온난화를 최초로 경고한 사람은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였다. 그는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과 삼림의 파괴로 이산화탄소의 평형이 깨지고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벌써 100년도 더 오래 전에 시작된 경고였다.

하지만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장마철이 없어지고 우기를 연상케 하는 아열대성 강우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한 후로는 지구 온난화를 피부로 느낀다. 원유가가 한때 15달러를 넘어서고 농산물 가격이 두 배로 뛰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처해야 할 친환경 건축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과목이 되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건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매체였고, 산업화 이후 도시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건축은 더욱 더 그러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의 종착역이었던 건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아주 적은 소수의 건축가들은 이를 인식하고 반응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건축가는 요구가 있을 때 반응하는 서비스업이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친환경을 절실히 요구하지는 않는다. 미국 대통령이 고어가 아니라 부시가 됨으로써 세계는 8년 정도 이 부분에서 후퇴하였다.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가 탄소제로 도시인 마스다르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추진하여 이 분야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

다음 세대의 대가

근대 건축의 거장을 들라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르 코르뷔제, 미스 반데 로에, 알바 알토를 꼽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만큼 이들이 세계 건축계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이 발생했던 근대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삶의 변화를 잘 담아낼 수 있는 건축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내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적용이 쉬운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대가가 될 수 있었다.

그들에 비해서 지난 50년간 출현했던 세계적인 스타 건축가들의 영향력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미미하다. 프랭크 게리가 IT 산업의 물결을 잘 타서 컴퓨터를 이용한 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주목할 만한 건축가가 된 점과 렘 쿨하스 정도가 도시 인구가 늘어가면서 건축이 도심화·대형화되는 것에 이슈를 맞추었으므로 건축계에 한 획을 긋기는 하였으나 역시 근대 건축의 대가에는 이르지 못하는 수준의 영향력이다.

오수정화중양공원계획안, (2007) 유현준디자인연구소.

하지만 향후 20년 내에 출현할 대가는 100년이 지난 후에 건축사가 평가할 때는 근대 건축의 대가를 뛰어넘는 건축가가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대가는 분명 새로운 친환경 건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친환경 건축은 점차적으로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디자인 철학과 감각으로는 이루기 힘든 수준의 건축이 요구된다. 따라서, 그 대가가 한 개인이 될지, 아니면 여러 종류의 회사가 함께 묶인 그룹이 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이다. 누가 되었건, 하루 빨리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친환경 건축이 자리잡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을 것이므로 친환경 건축/도시를 하루 속히 정립되어



야 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발명품’임에는 분명하다.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부 교수